

薛己의 生涯와 醫學著作에 관한 研究

朴載正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薛己의 生涯及 醫學著作의 研究

朴載正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薛己는明代具有代表性的溫補派醫家, 他生活在1487年(明 成化23年)至1559年(明 嘉靖38年)之間. 他受其父薛鑑的影響, 起初成爲一名瘍醫. 后通過研究內科, 兒科等, 成了一名精通臨床各科的全能醫生. 他曾在太醫院歷任醫士, 吏目, 御醫等職, 且在南京太醫院當過院判之后, 并于1530年(時年44歲)辭官歸鄉. 薛己辭官歸鄉后, 專心于臨床及著述, 卒于1559年.

其所著述的著作有『內科摘要』, 『外科發揮』, 『外科樞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癩瘍機要』, 『婦科撮要』, 『保嬰粹要』, 『口齒類要』, 『過秦新錄』(后世稱『保嬰金鏡錄』), 『正體類要』, 『本草約言』等, 且僅傳書名的有『醫學指南』及『嗣產法論』. 其所校注的著作有『婦人大全良方』, 『外科精要』, 『小兒藥證直訣』, 『小兒痘疹方論』, 『明醫雜著』, 『原機啓微』, 『保嬰撮要』, 『癩疽神秘灸經』等. 其所校勘的書籍有『十四經發揮』, 『敖氏傷寒金鏡錄』, 『癩疽神秘驗方』, 『本草發揮』, 『平活會萃』, 『傷寒鈐法』等.

關鍵詞: 薛己, 內科摘要, 外科發揮, 外科樞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婦科撮要

1. 序論

薛己는 中國 明나라 中期의 저명한 溫補派 醫家이다. 그는 世醫의 집안에서 出生하여 임상의 各科에 두루 정통했으며 太醫院에 들어가 관리로써 생활하기도 하였다.

金元時代의 劉河間과 朱丹溪의 의학이 널리 전파된 이후 명대에 들어와 一部の 의학자들은 苦寒한 약을 남용하여 脾胃를 손상하고 生氣와 眞陽

을 克伐하는 폐해를 야기하였다. 온보학파는 이러한 풍조에 대한 반발로써 흥기하였는데, 脾胃를 강조하고 腎과 命門의 生命에 대한 主宰作用을 강조하였으며 辨證論治 方面에 있어서 後天인 脾와 先天인 腎을 중시하여 甘溫之味를 善用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폐해를 바로잡은 적극적인 작용도 하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논쟁도 불러 일으켰다. 明代의 대표적인 온보파 의가로는 汪機, 薛己, 孫一奎, 趙獻可, 張介賓, 李中梓 등이 있다. 한국의 한의학도 이들의 영향을 깊이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薛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薛己는 당시의 醫學이 元나라의 遺風을 이어받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번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yooney@dju.ac.kr, Tel : 042-280-0601

아, 一般的으로 內傷發熱證을 治療할 때 많은 醫師들은 辨證을 하지 않으며, 虛實과 脾胃兩臟의 차이도 불문하고 寒冷攻伐의 治法으로 治療하는 것이 일수였다. 이런 弊端에 對하여 薛己는 매우 感慨하여 “世以脾虛를 誤爲腎虛하여 輒用黃柏知母之類 反傷胃中生氣하여 害人多矣.”¹⁾라고 批評한 적이 있다. 末學支離를 깊이 경계하고, 그 당시 성행했던 여러 폐단을 是正하기 위하여 그는 著述에 진력하였으며, 脾胃, 腎, 命門을 中心으로 한 學術思想을 자세히 論述하였다. 薛己는 東垣의 學術思想을 繼承하여 甘溫之性의 藥으로 脾胃之陽을 昇發시키는 方法을 중요시하였으며, 또한 王冰과 錢乙의 學說을 繼承하여 腎中水火를 重視하고 臨床에서 溫補藥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名聲이 높았다. 明나라 時期의 趙獻可, 張景岳, 李士材 등 醫家들과 學術上에서 密接한 관계가 있어서 後世醫家들은 그를 溫補派의 著名醫家라고 稱頌하였다. 『四庫全書』에서 論述한바와 같이 “己治病多用古方而出入加減에 具有至理하니 多在一二味間하여 見神妙變化之巧라 厥後趙獻可作『醫貫』하여 執其成法하여 遂以八味六味로 通治各病하고 甚至以六味丸으로 治傷寒之渴하여 膠柱鼓瑟하니 流弊遂多라 徐大椿(靈胎)因集矢於薛氏나 其實非己本旨니 不得以李斯之故로 歸罪荀卿也.(설기는 병을 치료할 때 고방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감을 함에 지극한 이치가 갖추어져 있었으니 흔히 한 두 가지 약미 사이에서 신묘한 변화의 교묘함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조헌가가 의관을 지어 설기의 성법에 집착하여 드디어 팔미환, 육미환으로 모든 병을 통치하고 심지어는 육미환으로 상한의 갈증까지 치료하여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놓고 비파를 타는 것과 같았으니 폐단이 드디어 많게 되었다. 서대춘이 이 때문에 설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을 했으나 그 사실상 설기의 본 뜻이 아니니 이사의 실수 때문에 순자에게 죄를 돌려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²⁾ 라고 하였다.

1) 薛己, 薛氏醫案選下冊, 內科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

이에 明代 溫補派의 大家였던 薛己에 대해 일차적으로 그의 생애와 저서에 대해 연구하여 간략한 보고를 하고자 한다.

2. 薛己의 生涯

薛己의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며 明나라 吳縣(지금의 江蘇省 蘇州市)사람으로 1487年(明·成化23年)에 태어나서 1559年(明·嘉靖 38年)에 卒하였다. 그는 醫學世家 出身으로 그의 아버지는 薛鑑이고 字는 良武인데 醫術에 精通하여 治病에 奇中(기이하게 적중하여 잘 치료함)이 많았으며 특히 小兒科와 外科에 뛰어남을 보였다. 薛鑑는 弘治年間(1488~1505)에 太醫院에 들어가 太醫院醫士가 되었고 후에 院使로까지 升進하였으나 크게 重視를 받지는 못한듯 하다. 薛己는 이를 몹시 한탄하였는데 顧夢圭는 『本草發揮』序에서 “新甫每云及乃父抱藝不售 歿于京師 輒歔歔痛念(설기는 매양 아버지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크게 쓰이지 못하고 北경에서 돌아가신 것을 언급할 때마다 흐느끼면서 몹시 슬퍼하였다)”³⁾이라고 하였다. 설기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학문을 연마하였다. 처음에는 金憲 高如齋를 스승으로 모시고 儒學을 공부하여 과거에 여러번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였다. 뒤에 이를 바꾸어 醫學을 학습하였는데 性品이 穎異하여 눈에 지나간 것은 문득 외울 수가 있었다. 그는 家學을 계승하여 처음에는 瘍醫(外科醫)가 되었다가 뒤에 內科, 小兒科 등을 연구하여 各科에 두루 精通하였다.

22歲(正德 3年, 1508年)때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를 대신하여 太醫院 醫士가 되었다. 北경 근교의 관청에서 근무하며 심사를 하기도 하고 公事로써 요새인 居庸關에 머물기도 했다. 일찍이 수레가 뒤집혀 부상을 당한 7명을 보았는

2) 永瑒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p. 873.

3) 裘沛然, 丁光迪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291.

데 땅에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었다. 설기가 사담들로 하여금 뜨거운 童便으로 씻게 하자 모두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다. 2년뒤(24세, 1510년) 처음의 시험에서 만점인 上等을 얻었으며 25歲(정덕 6년, 1511년)때는 太醫院 吏目으로 특별히 발탁되어 승진하였다. 이해 仲夏(음력 5월)에 錦衣衛의 掌堂으로 있는 劉廷器가 腹部에 癰이 있어 潰破되어 淸稀한 고름이 나오고 發熱, 口渴, 腹脹하며 嘔吐 不欲食하였다.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 熱毒이 內攻한 것으로 치료하여 黃芩, 黃連, 大黃등의 苦寒之劑를 두루 썼지만 병은 더욱 심하였다. 설기는 이를 보고 때(時)는 비록 한여름이지만 증상이 虛寒에 속하므로 마땅히 때를 버리고 증상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인삼, 황기, 건강, 부자 등의 약을 쓰니 一劑에 구토가 그치고 음식을 먹었으며 다시 托裡하는 약제들을 쓰자 치료가 되었다. 26세(정덕 7년, 1512년)때 무거운 수레에 치어서 오랫동안 기질하였는데 깨어난 뒤에는 胸滿如築하고 氣息不通하였다. 이어서 뜨거운 童便을 한사발 마시자 가슴이 시원하고 氣의 운행이 순조롭게 되었다. 그러나 小便時에 여전히 疼痛이 있었다. 同鄉의 徐銀台 東濼先生이 본 후, 復元活血湯 一劑를 주자 血便이 몇 되(升) 나오고 疼痛이 모두 사라졌으며 다시 血氣를 養하는 약을 복용하자 완전히 치료되었다.

28세(正德 9年, 1514年)때 두 번째 시험에서 上等의 성적을 얻어 御醫로 뽑혀서 승진하였다. 이해 7월 明나라 武宗을 위해 湯藥을 侍奉하다가 피로가 누적되고 음식을 제때에 먹지 못했으며 마음이 怒氣에 손상을 받았다. 다음해 봄, 莖中作痛하고 때때로 白津이 나왔으며 통증이 심할 때에는 급히 손으로 꼭 잡아야만 그치곤 하였다. 설기는 스스로 肝脾氣虛라고 진단을 하고 地黃丸 및 補中益氣湯加黃柏, 柴胡, 梔子, 茯苓, 木通등을 복용하여 치료하였다.

30세(정덕 11년, 1516년)때 갑자기 惡心하고 大椎骨이 몹시 가렵고 잠시 후에는 팔도 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스스로 天疔의 위급한 병이라고 생각 하였다. 급히 隔蒜灸法을 시행하니 가려움이 더욱 심하였다. 다시 50여장을 뜯뜨니 가려움증이 드디어 그치고 10여일 만에 치료되었다.

33세(정덕 14년, 1519년)때 전체의 시험에서 上等을 얻자 승진하여 南京太醫院으로 전보되어 正六品院判을 역임하였다. 이때 설기의 어머니가 65세였는데 2월에 음식을 먹은 후에 우연히 밖에서 뜻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는 嘔吐酸水하고 內熱作渴하며 飲食不進하고 오직 冷水만을 마셨다. 설기가 진찰을 하니 氣口脈이 大而無倫하고 面色이 靑赤하였다. 이에 胃中の 濕熱이 울체되어 火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을 투여하니 입에 들어가자마자 곧 吐하였다. 뒤에 약을 바꾸어 黃連一味를 달여서 조금 차게하여 마시게 했고 점차 白朮, 白茯苓등 建脾之品을 加하여 천천히 調理를 하니 드디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

42세(嘉靖 7年, 1528年)때 『外科發揮』등 4종류의 外科學著作을 刊行하고 淸壽의 『十四經發揮』 3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8年(1529년) 『內科摘要』 2卷 및 『癘瘍機要』 3卷을 저술했고 아울러 采色繪圖 『敖氏傷寒金鏡錄』 1卷을 校注 간행하였다. 嘉靖 9年(1530년, 44세) 年富力 강한 薛己는 의연히 한가하고 안일한 관직을 사직하고 奉正大夫 太醫院 院使 正五品에 이른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설기는 관직을 그만둔 후 “扶困起廢”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고 “庶光濟人”하는 것으로써 목적을 삼아 衷心全力으로 환자치료와 著述에 몰두하였다. 그는 民間에서 환자의 진료에 종사하면서 힘든 것을 사양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였으며 온 정력을 기울여 치료에 임하여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로 인해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에서 의사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가 지은 『外科發揮』 등 8종의 저작 중에는 거의 3,000종류의 醫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장기간에 걸친 임상 결과물이었다. 임상에 열중하면서도 그는 群書を 博覽

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항상 “蓬頭執卷 抽繹尋思 (풀어진 머리로 책을 잡아 실마리를 뽑아내고 깊이 생각하다)”하였으며 조금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널리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總結을 加하여 각종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다. 嘉靖 11年(1532년, 46세) 倪維德의 『原機啓微』 3卷을 校注하여 刊行하였다. 嘉靖 21年(1542년) 그의 나이 56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享年 88세였다. 어머니를 잃을 슬픔으로 그는 병을 얻어 齒縫에 脹이 생겼고 밤에 더욱 심하였다. 補中益氣湯을 복용한 후에 낮에는 비록 조금 누그러졌으나 밤에는 여전히 作脹하여 반드시 다음 날 새벽이 되어야 비로소 완화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1년이 다 되어서 모든 齒牙와 四肢가 비로써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정황 아래서도 그는 저술을 쉬지 않아 밤낮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嘉靖 24年(1545년, 59세) 『女科撮要』 2卷, 『外科樞要』 4卷을 완성하였다. 嘉靖 26年(1547년, 61세)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 24卷 및 『外科精要』 3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28年(1549년, 63세) 王綸의 『明醫雜著』 6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29年(1550년, 64세) 陳文中의 『小兒痘疹方論』 1卷을 校注하였다. 嘉靖 30年(1551년, 65세) 錢乙의 『小兒藥證直訣』 4卷을 校注하였다. 嘉靖 34年(1555년, 69세) 그의 아버지 薛鎧의 『保嬰撮要』 20卷을 校注, 增補하여 간행하였다. 嘉靖 38年(1559년) 설기는 癘病(중기)으로 인해 不治而卒하니 그의 나이 73세였다.⁴⁾

그의 死因에 대해 或者는 薛己가 癘病으로 죽게 된 것은 그가 평소에 補法을 너무 고집한 결과라고 하였다. 沈啓源은 『外科樞要』 序에서 “先生은 神于醫하고 而尤以癘擅名하니 所爲諸瘍이 書甚具라 凡病癰腫, 癰疽, 疔瘡, 癰疽는 經先生診治면 亡不立已라. 然卒因癘死하니 故로 人多訾先生하여 以爲執泥補法하여 不知合變이라하니라. (선생은 치

료에 귀신같았고 더욱 중기를 치료하는데 이름을 날렸으니 모든 중기에 대한 것은 책에 아주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 무릇 용종, 용저, 연완, 누려의 병은 선생의 진단과 치료를 거치기만 하면 즉시 낫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러나 끝내 중기로 인해 돌아가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생께서 보법만을 너무 고집해서 合變을 알지 못했다고 비난한다.”⁵⁾이라고 하였다. 그의 의학사상을 계승한 제자로는 周大經과 朱慎齋가 있다.

3. 醫學著作

1) 薛己가 撰注한 醫書概要.

薛己의 著作은 아주 多樣하며, 많은 內容이 醫案形式으로 쓰여졌는데 大部分이 그가 退職後에 故郷으로 돌아가서 쓴 것이다. 그의 著書에는 內科, 外科, 產婦人科, 小兒科, 鍼灸科, 齒科, 眼科, 整形外科, 本草學등을 包涵하며 內容이 極히 廣範 闊하다. 著作은 大體로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種類는 薛己 本人의 著作으로서 『內科摘要』, 『外科發揮』, 『外科樞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癘瘍機要』, 『女科撮要』, 『保嬰粹要』, 『口齒類要』, 『過秦新錄』, 『正體類要』, 『本草約言』 등이 있는데 『醫學指南』 十卷은 『醫藏目錄』에는 이름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고, 『嗣產法論』도 丹波元胤의 『醫籍考』에는 存在한다고 했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둘째, 種類는 그가 校注한 著作으로서 陳自明이 쓴 『婦人大全良方』 二十四卷, 『外科精要』 三卷, 錢乙이 쓴 『小兒藥證直訣』 三卷, 陳文中이 쓴 『小兒痘疹方論』 一卷, 王綸이 쓴 『明醫雜著』 六卷, 倪維德이 쓴 『原機啓微』 三卷, 그의 부친 薛鎧가 쓴 『保嬰撮要』 (保嬰全書라고도 한다.) 十卷 등 모두 二十卷이 되며, 이 외에 胡元慶의 『癰疽神秘灸經』

4) 盛維忠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pp. 1091~1092.

5) 薛己, 薛氏醫案選, 上冊, 外科樞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5.

』도 있다. 薛己가 校注한 醫書는 單純하게 文章의 잘못을 校正하고 註解만 한 것이 아니라, 自기의 臨床體得을 根據하여 醫案을 附着한 臨床經驗으로써 原著書의 內容을 評價하였으며, 또한 본인의 見解를 提出하여 自身의 學術思想을 闡述한 것이다. 例를 들면 錢乙이 쓴 『小兒藥證直訣』과 『明醫雜著』에 對한 校注는 잘못을 指摘한 것이 많고, 倪維德이 쓴 『原機啓微』에 對해서는 不足한 部分을 補充하였다.

세 번째, 種類로는 校勘한 著書로서 滑壽가 쓴 『十四經發揮』三卷, 杜本이 쓴 『欽氏傷寒金鏡錄』一卷, 陶華의 『癰疽神祕驗方』, 徐用誠이 쓴 『本草發揮』四卷등 모두 九권이 되며 이 외에도 朱震亨의 『平治會萃』, 馬宗素의 『傷寒鈐法』도 있다. 後世의 醫家는 그가 著述하고, 評價 및 校註한 冊들을 모아 『薛己醫案』二十四種을 編輯하였다.

2) 著書의 版本狀況

이상의 여러 書籍들은 薛己가 살아 있던 그 때 당시에 先後로 刊行되어 世上에 傳해졌다. 薛己의 著作들은 大개 綜述과 醫案을 混合하여 敘述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보통은 論證, 治療, 治驗의 順으로 되어 있다. 그가 校註한 책은 흔히 發揮을 한바가 있어 後學들에게 좋은 參考가 된다. 後人들은 그가 編撰 著述하고 校註한 醫書를 모아 『家居醫錄』과 『薛氏醫案』을 成篇하여 明 萬曆年間에 刊行함으로써 널리 傳해진 바가 있었다. 현재 中國에 保存되어 있는 版本으로는 『薛氏醫案九種』과 『薛氏醫案十六種』 그리고 『薛氏醫案二十四種』등이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이 成立된 後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는 일찍이 薛己가 著述한 책을 單行本으로 影印하거나 印刷出版하였다. 이 出版社에서는 또 『薛氏醫案』의 通行本을 바탕으로 하고, 기타 여덟 가지 版本을 선택하여 魚右山房刊本과 聚錦堂刊本을 根據로 삼아 互校 및 標點을 한 후에 『薛氏醫案選』이라 命名하고 1983年 4월에 出版하였

다. 『薛氏醫案選』은 상하 두 卷으로 나뉘지는데, 上卷은 『外科發揮』, 『外科樞要』, 『癰瘍機要』, 『正體類要』 그리고 『口齒類要』를 함께 묶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下卷은 『內科摘要』, 『婦科撮要』, 『保嬰撮要』를 묶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3) 各 著書의 內容에 대한 簡介

① 『內科摘要』: 薛己가 1529年(嘉靖八年)에 쓴 冊으로서 모두 二卷으로 되었는데 飲食勞倦, 心腹作痛, 陽氣脫陷, 發熱, 吞酸, 噎腐, 停食, 痢疾, 咳嗽, 痰喘, 頭眩, 痰氣, 血燥, 結核, 瘧疾, 小便不利, 肚腹膨脹, 暑濕所傷, 小便自遺, 淋瀝, 虛勞, 遺精, 吐血, 便血, 下部瘡腫, 大便秘結等內傷外感證의 論治에 對하여 各자 排列하여 說明하였다. 이 冊은 醫論과 醫案을 결부시켜 論述하였고, 病情의 推論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書名을 『內科摘要』라고 하였다. 이 책은 韓의학에서 “內科”로서 書名을 삼은 최초의 서적으로 韓의학에서 內科의 개념을 正식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內科病證의 진단과 治療에 대단히 큰 功헌을 하였다. 病理적으로는 모두 脾胃, 肺, 肝, 腎의 虧損과 命門火衰를 爲主로 分析하였고, 治療에서는 淸根源의 推究를 重視하여 六味地黃丸, 八味地黃丸 및 補中益氣湯을 主要 方劑로 採用하였다. 이 冊에는 200여 個의 醫案이 包括되어 있는데, 每 하나의 醫案에 對해서는 모두 病因, 病機, 遣方用藥, 豫後 그리고 誤治 등에 對하여 論述하였는데, 辨證과 分析이 深刻하고 文字가 精巧하며, 比喩 비슷한 虧損의 病證이라도 서로 다른 治法을 提示하곤 하였다. 그리고 每 卷의 뒤에는 各 病證에 使用되는 方劑를 附錄으로 실어 臨床에 參考가 되도록 하고 있다. 冊中에는 理論的 論述이 明白하고, 醫案들은 모두 臨床治療의 檢定을 받은 것으로 充分한 參考價値가 있다. 後世의 黃承昊(履素)는 薛己가 쓴 『內科摘要』와 校註한 『明醫雜著』를 編纂하여 『醫宗撮要』(別稱 『醫宗摘要』)라고 하였는데, 比較的 널리 流轉되었다.

② 『外科發揮』: 薛己가 1528년(嘉靖七年)에 간행된 冊으로서 8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腫瘍, 潰瘍, 發背, 腦疽, 肺痿, 癰癤, 咽喉, 楊梅瘡 등 31개 種類의 外科疾患을 治療하는 經驗의 醫案을 論述하였다. 매개 醫案마다 앞부분은 治療原則을 簡約하게 論述하고, 뒷부분에는 治療方劑를 附着시켜 文字가 簡單明瞭하여 實際臨床應用에 適合하게 著述되어 있다.

③ 『外科樞要』: 1571년에 간행되었으며 (1545년에 완성) 4卷으로 되어 있는데, 第1卷은 瘡瘍에 對한 21篇의 證候辨證을 記錄하였고, 第2~3卷은 病證을 綱目로 삼아 全身各部位 30餘種 瘡瘍의 證治를 各自 論述하고 病案도 附着하였으며, 第4卷은 瘡瘍各證의 治療方劑를 모두 排列하여 說明하였다. 이 冊은 論述이 簡略하고 外科瘡瘍에 對한 辨證과 證候의 內容을 相當히 많이 說明하였으며, 薛己學說의 理論과 臨床을 結合한 重要한 外科著書이다.

④ 『外科心法』: 薛己가 1528년에 간행한 冊으로서 7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外科에 관한 醫論과 醫案을 著述하였다. 第1~2卷은 여러 醫家들의 診斷과 治療大法를 記錄하였고, 第3~6卷은 薛己 自身の 外科病症治療에 對한 病案을 記錄하였으며, 第7卷은 앞의 各卷에서 使用된 方劑를 記錄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驗方劑까지 附着시켰다. 이 冊 역시 薛己學說의 理論과 臨床을 結合한 著書中의 一部이다.

⑤ 『外科經驗方』: 薛己가 1528년에 간행한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腫瘍, 潰瘍, 疔瘡, 乳癰, 癰癤, 咽喉, 口齒, 囊癰, 下疳, 痔瘡, 便毒, 懸癰, 臍瘻, 湯火, 小兒丹毒 등 여러 外科病症의 臨床經驗方劑들을 分別하여 論述한 著書이다.

⑥ 『癰瘍機要』: 1554년에 간행된 冊으로서 3卷으로 되어 있는데, 麻風病(癩病)을 專門적으로 論述한 著作으로서 주로 麻風病의 本症, 變症, 兼症, 類症의 辨證治療와 驗案 및 治療方劑에 對하여 分別하여 詳細히 論述하였다. 上卷에서는 우선 癰瘍의 病因, 病機, 病位 및 治療原則에 對하

여 論하였고, 다음에 癰瘍의 本證治法, 兼證治法, 變證治法 및 各種 類似病證에 對하여 論하였으며, 마지막에 本證의 治驗과 類證의 治驗에 對하여 紹介하였다. 中卷에서는 諸症에 對한 治療를 이어서 論한 것으로 男性, 婦人, 小兒의 各種 癰瘍의 證治에 對하여 論하고 있다. 下卷에서는 各病症에 使用되는 處方 109개에 對해 紹介하고 있다. 이 冊은 醫案病例를 比較적 많이 收集하였고, 病候의 句節과 題目에 對한 論述이 明白하여 後世醫家들이 麻風病을 研究하는 重要한 參考書籍로 되었다.

⑦ 『女科撮要』: 薛己가 1548년에 쓴 冊으로서 2卷으로 되어 있다. 上卷에서는 흔히 보이는 婦人科 疾患인 經候不調, 帶下, 乳癰, 乳巖, 陰瘡 등에 對하여 論述하였고, 下卷에서는 産科에 屬한 病證인 保胎, 小産, 胎衣不出, 産後腹痛 등에 對하여 論述하고 있다. 上卷과 下卷에서 各各 15種의 病證을 舉論하고 있었다. 每 病證을 論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病因, 病機 및 治療原則을 論하였고, 다음에 臨證經驗을 列舉하였다. 每 卷의 마지막에는 各 病證에 該當한 治療方劑를 總合하여 附錄하였다. 이 冊의 特徵은 婦科와 産科疾患을 分類하여 證治하였으며, 論述한 內容이 多樣하고 資料가 廣範圍하여 産科臨床辨證에 一定한 參考價値가 있다.

⑧ 『保嬰撮要』: 薛鎧가 쓰고 後에 薛己가 增補한 冊으로서 20卷으로 되어 있는데, 1555년에 간행되었다. 앞의 10卷은 初生嬰兒의 護養法과 兒科疾患의 診察法, 變蒸, 五臟主病 및 幼兒內科 雜病의 證治를 論述하고 있는데 薛鎧가 저술하고 그 中の 治驗部分만 薛己가 補充한 것이다. 뒤의 10卷은 모두 薛己가 쓴 것으로 주로 小兒의 外科, 內科, 皮膚科, 五官科 및 痘疹 등 221種의 病의 證治와 醫案을 주로 論述하였다. 每種 病證을 論함에 있어 먼저 病因, 病機, 治療原則을 論하고, 다음에 本 病證의 治驗醫案과 各種 治法을 記載하였으며, 마지막에 各種 方劑를 附錄하였다. 이 冊의 特徵적인 面은 比較的 豐富한 治療方法

을紹介하였을 뿐만 아니라 大量의 小兒科醫案을 收錄한 것이다.

⑨ 『口齒類要』: 薛己가 1528年(嘉靖7年)에 쓴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齲唇(唇), 口瘡, 齒瘡, 舌症, 喉痺, 喉間雜病 등 8種의 口齒科疾患과 諸蟲入耳 등 4가지 모두 12가지 種類의 口齒科 疾患에 對한 辨證과 治療方法을 論述하였고, 매개 證의 뒤 部分에 驗案과 方劑를 附着하였으며 記載된 方劑는 모두 69個가 되고, 매개 方劑마다 適應症을 詳細하게 論述하였다. 그리고 이 冊에는 骨鯁, 詛蟲, 體氣(狐臭, 악취)等 疾病의 證治法도 記載되었지만 주로 口齒疾患을 論述한 專門 著作이다.

⑩ 『過秦新錄』: 薛己가 約16世紀 中期에 쓴 冊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 첫 篇은 小兒과 面部色診의 診法과 30여개의 治療驗案을 附着하여 論述하였고, 그 다음 篇은 小兒指紋의 診法과 10여개의 治療驗案을 附着하여 論述하였으며, 마지막 篇에는 小兒科의 常用方劑 60여개를 附着하였다. 이 책은 小兒科의 望診에 對한 論述이 아주 特色이 있어 兒科診治의 常用參考書籍으로 되었으며, 後世는 이 冊을 『保嬰金鏡錄』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冊은 薛己가 校註 하였으나, 冊을 쓴 著者는 누군지 不明하다고 하였다.

⑪ 『正體類要』: 薛己가 1529年(嘉靖八年)에 쓴 傷科에 對한 專門著作으로서 2卷으로 되어 있는데, 첫 篇은 正體의 主治大法을 19條 記錄하였고, 그 다음 篇은 撲傷, 墜跌, 金傷, 燙火傷等 三種類疾病에 關한 醫案으로서 64個의 病證을 매개 證마다 1~3개의 例를 들어 記錄하였으며, 下卷은 傷科의 臨床治療方劑를 記載하였다. 外治에 使用되는 方劑를 紹介한 外에 特別히 內治의 方劑를 重試하였는데, 그는 氣血을 調和시키고 肝腎을 補하는 것을 主로 삼았고 行氣活血하는 것을 次로 삼았다. 이 책의 特點은 理論과 臨床實際를 잘 結付시켰으며, 方劑와 證이 모두 적혀 있어 臨床實踐에 適한 著作이다. 『醫宗金鑑·正骨心法要訣』은 바로 本書를 모델로 삼아 編纂

한 것이다.

薛己가 쓴 수많은 醫學著作과 校刊한 醫書는 우리들에게 그의 重要한 學術思想과 豐富한 臨床經驗을 提供하고 있다. 例를 들면 『癰瘍機要』, 『口齒類要』, 『正體類要』等 著書들은 모두 現存하는 比較的 오래된 專門醫著들이고, 만약 그 當時 薛己가 『小兒痘診方論』, 『外科精要』, 『敖氏傷寒金鏡』, 『原機啓微』, 『癰疽神秘驗方』 등 重要한 醫書들에 對하여 校刊에 전력하지 않았다면, 아마 至今까지 保存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4. 結 論

薛己의 生涯와 醫學著作에 關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薛己는 明代의 代表的인 溫補派醫家로 1487년(明 成化 23年)에서 1559년(明 嘉靖 38年)사이에 生存하였다.
2. 薛己는 아버지 薛鏗의 影響을 받아 처음 癰醫가 되었다가 內科, 小兒科等を 연구하여 各科에 두루 精通하였다.
3. 薛己는 太醫院에서 醫士·吏目·御醫를 역임하고 南京太醫院에서 院判을 지낸 후, 1530년(44歲 때)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4. 薛己는 이후 臨床과 著述에 전념하다 1559년(73歲 때) 卒하였다.
5. 그가 저술한 著書로는 『內科摘要』, 『外科發揮』, 『外科樞要』, 『外科心法』, 『外科經驗方』, 『癰瘍機要』, 『女科撮要』, 『保嬰粹要』, 『口齒類要』, 『過秦新錄』(후세에 『保嬰金鏡錄』이라 함), 『正體類要』, 『本草約言』이 있고

이름만 전해지는 책으로는 『醫學指南』, 『嗣產法論』이 있다.

6. 그가 校注한 著作으로는 『婦人大全良方』, 『外科精要』, 『小兒藥證直訣』, 『小兒痘疹方論』, 『明醫雜著』, 『原機啓微』, 『保嬰撮要』, 『癩疽神秘灸經』이 있다.

7. 그가 校勘한 서적으로는 『十四經發揮』, 敖氏傷寒金鏡錄』, 『癩疽神秘驗方』, 『本草發揮』, 『平治會萃』, 『傷寒鈐法』 등이 있다.

參考文獻

1. 裘沛然, 丁光迪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2.
2. 薛己, 薛氏醫案選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 薛己, 薛氏醫案選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4. 盛維忠主編,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5. 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